

관광객이 몰려온다... '나주 1박 2득' 흥행예감

접수자 2000명 돌파·관광 소비 1억2000만원 기대 숙박 관광객 인센티브...체류형 관광 전환 가속화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숙박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 '나주 1박 2득'이 시행 초기부터 높은 참여를 보이며 체류형 관광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 가운데 지난 15일 기준으로 접수 인원이 2000명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집계된 지원금 규모는 5000만원에 달한다. '나주 1박 2득'은 나주를 잠시 들르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 체류형 관광 사업으로

나주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한 관와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동행 인원 기준에 따라 최대 15만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지급 방식은 나주사랑상품권 또는 나주몰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황포돛배 할인권과 빛가람 전망대 모노레일 이용권을 함께 제공해 숙박과 관광,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체류형 관광이 실제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4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관광 숙박여행 1인 평균 지출액은 6만1000원으로 3월 13일 기준 접수 인원 2000명에 이를 적용하면 약 1억2000만원 규모의 직접 관광 소비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현재 집계된 지원금 5000만원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숙박과 음식점, 카페, 체험, 쇼핑 등 지역 상권 전반

으로 소비가 확산하는 체류형 관광 정책의 효과를 보여준다.

나주시는 더 많은 관광객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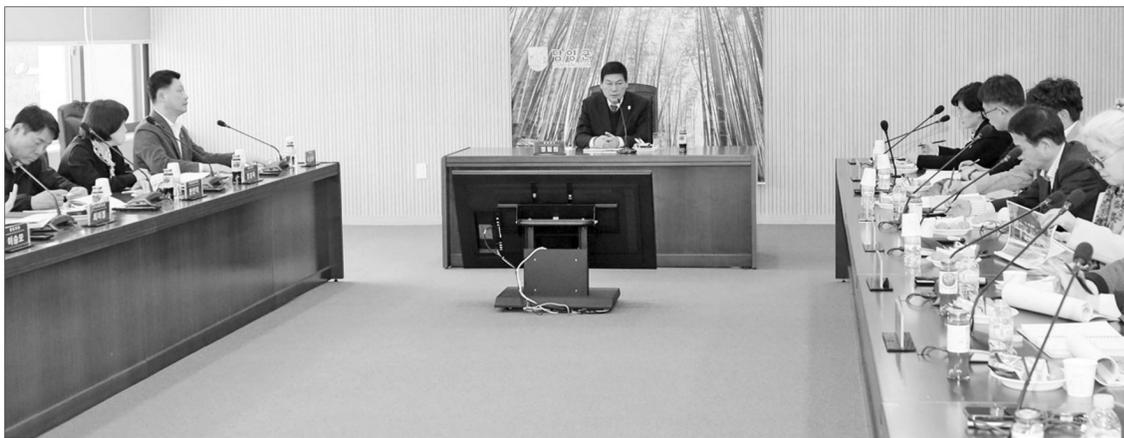
기존 여행 3일 전까지 가능했던 사전 신청 기준을 여행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주시는 '나주 1박 2득'을 통해 단순 방문 중심 관광 흐름을 체류와 소비 중심 구

조로 전환하고 방문의 해 주요 관광 콘텐츠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나주 1박 2득'은 관광객이 실제로 나주에서 머물고 먹고 즐기며 소비하도록 설계한 체류형 관광 정책이다"며 "신청 기간 개선으로 이용 편의를 높인 만큼 더 많은 관광객이 정책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방문 확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담양군은 최근 '2027 남도정원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업무 협조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정철원 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전남도 관계자, 국립정원문화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담양군

담양 '남도정원 비엔날레' 성공 개최 밑그림 그린다

착수보고회 개최...전남도·국립정원문화원 등과 협업

담양군은 최근 '2027 남도정원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업무 협조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보고회에는 정철원 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전남도 관계자, 국립정원문화원 등 약 30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기본 구성,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7년 10월 즉독인 일원에서 펼쳐질 '2027 남도정원 비엔날레'는 총사업비 50억원 규모의 정원 행사다. 작가 정원 등 유형별 정원 전시를 비롯해 경연대회, 정원 탐방, 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마련해 남도 정원문화의 가치를 안팎으로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5년 문을 연 국립정원문화원 등으로 높아진 전남 정원문화의 위상을 바탕으로 기획했다. 정원의 경계를 넘어 자연과 예술, 생태와 도시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정원문화의 미래를 제시하는 축제로 꾸민다.

호남의 대표 정원인 소재원과 죽녹원, 관방재림, 국립정원문화원 등 남도의 소중한 정원 자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향후 전남 시군 정원과 연계한 관광 상품 확산도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남도 고유의 정원문화와 자연경관을 살린 차별화된 비엔날레를 준비하겠다"며 "남도정원 비엔날레가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 관광 활성화, 정원산업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과 전남도는 2026년 기본·실시계획과 콘텐츠 개발, 기반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 뒤 2027년 본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담양=이서수 기자 iss270@

고흥 도덕면, 주민 휴식 공간·관광 자원화

'도덕저수지 오솔둘레길' 5억 투입...8월 준공 목표

고흥군은 도덕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덕저수지 오솔둘레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덕면 도덕리 31번지 일원 도덕저수지 주변에 총연장 1.8km 규모의 오솔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5500만원을 투입해 이달에 착공,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군은 지난해 실시계획을 완료했으며, 올해 5억3500만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야자 매트 포장(760m), 보도 설치(151m), 보도교(20m) 설치, 차선도색, 데크 계단 설치 등으로, 저수지 지형과 기존 도로 여건을 고려한 친환경적이고 안

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도덕저수지를 단순 농업용 수리시설에서 벗어나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산책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둘레길 조성으로 소규모 관광 유입을 유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덕저수지 오솔둘레길은 주민 건강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의 새로운 녹색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고흥 도덕저수지 오솔둘레길 사업대상지. 사진제공=고흥군

순천, 맞춤형돌봄서비스 어르신 안전망 강화

외출동행·가사지원 등 제공...돌봄 사각지대 해소

순천시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접수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생활지원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순천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3개 수행기관을 선정해 위탁·운영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노인, 조손가구,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주거적 안부 살핌, 사회참여 활동 지원, 생활교육, 외출동행 및 가사지원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 퇴원 후 일정 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영양 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 등 일상 회복을 돕는 단기 집중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함평 어울림커뮤니티센터, 본격 운영 돌입

군-함평읍 어울림협동조합 위수탁 협약체결

함평군이 읍내 생활 거점시설인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군수실에서 함평읍 어울림협동조합과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와 수탁기관인 함평읍 어울림협동조합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해 센터 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추진된 함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조

성된 생활복지 거점시설이다. 내부에는 주민자치회실, 건강증진실, 공동보육실, 대회의실, 공유 주방, 동아리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다양한 편의공간이 조성돼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함평읍 어울림협동조합은 협약을 통해 이달부터 2028년 12월까지 센터 시설과 프로그램 관리,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

강길원 함평읍 어울림협동조합 이사장은 "센터가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함평군은 최근 군수실에서 함평읍 어울림협동조합과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함평군

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리,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전반적인 운영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어울림커뮤니티센터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

하는 중심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유채꽃·노을 보러 영광 백수해안도로 오세요"

꽃망·바다명·노을명 등 환상 조화...포토존 등 설치도

영광군 백수해안도로에 노란 유채꽃과 푸른 사해바다, 붉게 물드는 노을이 어우러지는 봄 풍경 장관이 펼쳐지고 있어 지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백수해안도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곳으로, 해안 절경과 봄철 꽃망이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드라이브 코스로, 매년 봄꽃이 피는 시기에는 많은 화사한 봄기운을 전하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봄바람에 흔들리는 황금빛 유채꽃 물결과 드넓은 사해 바다,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노을이 겹쳐지며 '꽃망·바다명·노을명'을 즐기는 사해안 대표 봄 여행

지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매년 봄 빛꽃이 장관을 이루는 백수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 맛을 위해 최근 대대적인 환경 정비를 마쳤다.

이번 환경정비는 관광객 방문이 4월부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원들은 도로변과 노을정망대, 둘레길 주변 일대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설물 점검에 나섰다.

올해 유채꽃밭 3곳에 포토존을 설치하

고 탐방로를 새롭게 만들어 방문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꽃을 즐기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덕분에 유채꽃의 노란 물결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지는 풍경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백수해안도로에서 즐기는 봄나들이 시간을 보내고, 봄의 여유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4월부터 '영광 심포(반도 여행)'를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사전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는 4월 초 구축될 예정이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진도,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아이랑수산시장 92개 점포

진도군은 침체한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쌍정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은누리상점가 가맹점 등록을 적극 지원한다.

진도아리랑수산시장 일대의 92개 점포가 골목형상점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은누리상점가의 사용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방문이 이어지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소상

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제도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상점가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음식점 밀집 지역 등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전통시장에 대한 혜택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은누리상점가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점이며, 은누리상점가를 사용하는 관광객과 소비자는 선할인점과 환급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gwangnam.co.kr